

광주 14개 농협 출자 최대 규모 RPC법인 출범

고급쌀 생산 전국 제패 나선다

연 매출 200억 목표... 친환경쌀 재배 면적 확대

올 초 광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엄대규)을 출범시킨 광주 지역 14개 지역농협들이 고급쌀 생산을 통해 전국 제패에 나선다.

사업법인은 지난해 150억원에 불과한 연매출액을 올 말에는 200억원, 내년에는 25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완전미 시설을 갖춘 경우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14개 농협이 각각 2억5천 만원을 출자해 설립된 사업법인은 지난해까지 대촌농협과 분림농협이 운영해오던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RPC)을 1월에 인수한 뒤 12명의 상근직원을 배치해 고급쌀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이어 사업법인은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참여회원 출자 희망량 전량 수매 ▲광주쌀 전국 으뜸 브랜드 육성 ▲규모화를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확대 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우선 농협별로 계약재배 농가수와 적정 경지면적을 확정하고, 심수종의 품종을 단일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12년 넘은 노후화된 RPC시설을 철단장비를 갖춘 현대화된 RPC로 개보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개소의 RPC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2만에 달한다. 그러나 건조·저장시설(DSC)의 용량은 3천600t에 불과해 사업법인은 올해 3천t을 늘려 7천600t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엄대규 대표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품종을 선택한 뒤 파종에서부터 재배·생산·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고급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법인은 10여개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고려, 이들을 통합해 2~3개의 브랜드를 새로 출범시켜 전국화에 나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아울러 젊은층을 겨냥, 1·2·5·10kg 등 소포장 판매를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마케팅팀을 별도로 조직해 전국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배인수 사업법인 운영위원회 의장은 "문제는 RPC 개보수자금, DSC 확충 등에 추가로 들어갈 자금 40억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광주시나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성수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사업법인이 경영안정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고급쌀 생산·판매과정을 특별관리해 농가소득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장미 출하 '바쁘다 바빠'

꽃집업과 입학시즌을 앞두고 장미꽃 1송이에 1천원을 호가하는 등 꽃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강릉군(50·영광군) 연산면 아월리씨 부부가 장미꽃을 출하하느라 바쁜 손길을 보이고 있다.

꽃집업과 입학시즌을 앞두고 장미꽃 1송이에 1천원을 호가하는 등 꽃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강릉군(50·영광군) 연산면 아월리씨 부부가 장미꽃을 출하하느라 바쁜 손길을 보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중소 기술지원 순회 설명회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2008년도 13일부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순회설명회 일정은 ▲13일=광주권(광주상공회의소) ▲20일=전남동부권(순천대 70주년기념관) ▲21일=전남서부권(목포벤처지원센터)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10개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올해 지원계획, 신청자격, 신청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IBK 직거래장터' 운영

企銀, 中企 판로개척 위해

기업은행은 11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돕기 위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IBK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IBK 직거래장터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사이트'로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2곳에서도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과 보증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SGI사이클론'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기업에 구매자금 대출과 판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굴삭기·지게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해야 사업 가능

앞으로 도로위를 달리는 건설기계도 안전띠를 매야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을 위해 반드시 건설기계로 등록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띠 착용은

물론,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부착 등을 의무화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 안전띠 설치 의무화된다. 대상은 굴삭기 등 14종(11만381대)과 지게차(10만7천476대) 등이다.

(90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기준 마련으로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신고만으로 사업할 수 있었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 타워크레인 사업자에게는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타워크레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2년마다 받도록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난해 1,010개 中企 '워크아웃' 줄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천10개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952개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새로 선정됐고 342개사는 부도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천257개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2천637개사가 졸업하고 1천147개사는 중단해 현재 1천473개사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지원 규모는 3조2천462억원으로 이중 만기연장이 2조5천5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규여신 6천628억원, 이자감면 103억 등의 순이었다.

지원형태를 보면 만기연장 비중은 2005년 92.1%에서 2006년 83.8%, 2007년 78.7%로 감소한 반면 신규여신 비중은 같은 기간 6.4%에서 14.2%, 20.4%로 증가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권의 총 지원액은 12조3천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은행권, 中企 대출 5년만에 최고

작년 371조 23% 늘어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3%에 달해 최근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이 생산까지 못한 영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가설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2006년에 비해 22.5% 늘어난 37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대출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증가율 증가율은 2003년 17.9% 급증한 이후 2004년 2.4%, 2005년 5.2%로 소강국면에 들어섰다가 2006년에 17.6% 늘어나 급증국면으로 돌아섰다.

중기대출의 급속한 증가세(22.5%)는 같은 기간 중기매출 증가율(5.3%)에 비해 4.2배 많았다는 점에서 골치 아픈 시선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 우리 것이 최고'

전남지역 농협 작년 친환경농축산물 421억 공급

전남지역 농협들이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에 따르면 전남지역 21개 시·군 55개 농협은 지난해 1천904개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급식에 421억원 어치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납품했다. 이는 지난해 328억원보다 28.4% 늘어난 수치로, 전남지역 학교급시장(865억원)의 48.6%를 점유했다.

전남농협의 매출은 2003년 24억원으로 출발해 2004년 96억원, 2005년 207억원, 2006년 328억원, 2007년 421억원 등으로 매년 100억원씩 급성장해오고 있다.

품목별로는 ▲과일채소류 167억원(39.6%) ▲양곡잡곡류 139

억원(32.9%) ▲축산물 55억원(13.1%) ▲가공품 44억원(10.6%) ▲농협김치 6억원(2.53%) 순으로 과일채소와 양곡이 전체 식재료의 72.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조달은 계통농협 202억원(47.9%), 산지직거래 125억원(29.6%), 도매시장 59억원(14.0%) 순이었으며 특히 목포농산물유통센터(64억원), 순천농협(59억원), 나주연합사업단(50억원), 광양원협(35억원) 등이 납품을 주도했다.

이덕수 전남농협본부장은 "향후 전남을 넘어 광주·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시장을 집중 공략,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오비맥주 마케팅 상무 황인정씨



오비맥주(대표 이호림)는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11일 황인정(41·사진)씨를 마케팅 총괄상무로 선임했다.

황 상무는 페덱스 코리아를 거쳐 코카콜라 보틀링에서 마케팅 전략을 비롯해 기획·세일즈 분야를 두루 섭렵한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황 상무는 앞으로 오비맥주의 전반적인 마케팅업무를 총괄, 오비맥주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43rd Kwangju Ilbo 3.1 National Marathon. It features a runner, a large crowd of people, and a map of the course. Text includes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and '광주·전남중기청'.